



## 여수시, 여성 친화도시 만들기 한창

여수시가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수시는 '평등·안전·행복 도시 실현'이라는 3대 정책목표를 기치로 내걸고 62개 단위사업을 발굴, 여성과 가족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도 지난 2009년부터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사업 순차적 실행 = 1호 도시로 지정된 전북 익산시에 이어 지난 2009년 2호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여수시는 2013년 여성친화 유공기관 처음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여수시는 ▲성 평등 정책과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평등 실현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 육성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구축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연대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수시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기 전인 2008년 3월 '여성발전 기본법'에 따른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사업도 순차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여수시는 자녀보육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들을 위해 여수시 학동 1차사 뒤 용기공원 일원에 연면적 2278㎡ 규모의 여수시 영정 직장어린이집을 지난 3월 건립했다. 지

### 62개 단위사업 발굴 추진

#### 직장어린이집 건립

#### 밤길 밝히고 안전망 구축

#### 전용 주차구역도 확대

#### 장기플랜·예산확보 등 박차

난 6월 문을 연 장난감나라는 다양한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전국 최고 수준의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구축한 '여수시 CCTV 통합 관제센터(CCTV 1260대)'를 개소해 여성과 아이, 시민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24시간 여성안심 콜센터 운영으로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들이 각종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버스 출입문과 손잡이를 조절한 저상 시내버스와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여성전용 주차구역 설치와 여

성친화 공영 주차장 운영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배려도 빼놓지 않았다.

또 소규모용 바구니를 부착한 여성 친화형 'U-바이크(Bike)' 공영자전거 시스템(200여대)을 구축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성권의 향상 위해 행정력 집중 = 이 밖에도 여성·노약자를 위한 명품 돌레길과 가족 친화공원(129개), 진입로를 낮춘 보행로와 안전한 길 조성, 골목길·공원 등지에 보안등 신설과 조명 밝히기 등 여성과 노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여성들의 권익 향상에도 행정력을 쏟고 있다.

134개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 모니터링 공개와 420여명의 공무원을 연계한 '물가관리 책임관제'를 운영, 바가지 요금을 잡고 있다.

이밖에 부부 공동 문패 달기, 다문화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 주민 종합지원센터 운영, 23개의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우리

지역 역사·문화 바로알기 운동 전개 등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전개 중이다.

반면 여수시가 그동안 성과 위주의 사업에만 치중하면서 중·장기적 정책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행정의 특성상 단기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산지원이 지금껏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활발한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 전국 50개 여성친화도시 중 정부예산을 제대로 지원받은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장기 플랜과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수시 김보희 환경복지국장은 "여성·어린이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 여수세계박람회장 3차 매각도 무산

### 추진위, 정부에 활용 대책 촉구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3차 매각이 또 무산됐다.

여수 세계박람회재단은 22일 "박람회장 매각을 위해 진행한 '사후활용 개발 사업 제안 공모' 마감 시한인 지난 15일 까지 응모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지난 6월, 토지와 시설물 등 전체를 공시지가 수준인 4800억원 상당에 인수해 활용할 기업을 찾는 내용의 공모를 진행해 왔다.

3차 매각이 무산되자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추진위는 곧바로 논평을 내고 "박람회장 정리 계획을 버리고 제대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라"며 정부에 촉구 하고 나섰다. 추진위는 "지역민들은 박람회 개최 이전부터 여수 박람회장의 실현 가능한 사후 활용계획을 수립·시행

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며 "박람회 폐막 직후에도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위해서는 박람회 주제와 이념을 계승하는 공익 시설 설립·운영과 이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의 순서로 진행돼야 한다"고 정부에 출근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을 위한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은 채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제관 등 공익 시설까지 매각대상에 포함하는 등 청산에만 몰두하면서 박람회장을 돈벌이 도구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방향의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또 "오는 11월 중순 발표될 사후 활용계획 변경 연구 용역결과도 정부가 의도한 대로 계획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 오늘 크루즈 관광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여수지역 크루즈 관광산업 발전 방안이 마련된다.

여수 상공회의소(회장 심장섭)와 여수관광항공사(대표 김동우)는 23일 디오션호텔에서 '여수, 광양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수항 크루즈 관광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지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로 새 동력을 얻은 여수·광양항의 해양관광 발전전략 수립과 크루즈 관광산업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 해양관광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기조연설을 맡은 박태욱 중국상해해사대 교수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수항 크루즈산업 발전방향과 동

북아시아와 세계 크루즈 산업 현황·변화에 대해 발표한다. 또 임영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레저담당관은 '동북아 크루즈 관광의 허브, 제주'를 주제로 발표한다.

심장섭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가장 중요한 핵심 콘텐츠가 크루즈 관광"이라면서 "이시 크루즈 전용부두를 보유한 여수항의 장점에 내년 4월 15만t급 크루즈 선박까지 접안이 가능해 지는 만큼 크루즈 관광 활성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 여수 구경하면서 자전거 타기 신나요



여수시민과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지난 20일 '여수시 자전거 대행진'에 참가해 페달을 힘껏 밟고 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소호 요트경기장을 출발해 여수시청~하수 종말처리장~신월동~중앙동 이순신광장을 거쳐 오동도까지 17km 구간에서 진행됐다. <여수시 제공>

## 관광주간 여수 가을여행 할인 혜택 다양

여수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관광주간(9월 25~10월 5일)에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 여수 가을여행'이라는 주제로 관광객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여수시는 이 기간에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아름다운 여수 여행' 2박 3일 코스, '365개의 보석 같은 섬과 함께하는 힐링 아일랜드 투어' 1박 2일 코스 등을 마련해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행사 기간에 초·중·고교생을 동반한 다른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여수 시티투어 2개 노

선의 무료 탑승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인기가 높은 해양레일바이크와 아쿠아 플라넷 여수, 박람회장 스카이플라이, 유람선 등 관광지와 한옥호텔 자동차, 디오션호텔 등 숙박시설에 대해 5~5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할인 쿠폰북을 이용하면 195개의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의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여수를 다녀간 후 관광 사진, 이용 후기, 홍보광고(CF) 동영상 등을 여수시 관광 누리집(www.ystour.kr)에 응모하면 여수 관내 호텔 숙박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원곡	961-2339
중앙	222-1896
중흥	224-8604
진월	673-1600
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8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33-991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여수 62 광주일보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